래리 윌리엄스
변동성 돌파와 크기의 규칙

1987년 선물 매매 대회에서 1만 달러를 1년 만에 약 110만 달러로(수익률 11,376%). 그런데 본인은 그해를 「인생 최악의 해」라고 불렀어요. 매번 계좌의 30%를 걸었다가 블랙먼데이에 220만 달러가 75만 달러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규칙 네 가지

1 큰 하루는 시가에서 시작된다
크게 오르는 날은 거의 언제나 저가 근처에서 열려 고가 근처에서 끝난다(본인 관찰).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는 순간을 따라간다.

2 시가 + 어제 폭 × 0.5 를 넘으면 산다
어제 폭 = 어제 고가 − 어제 저가. 0.5는 정답이 아니라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 넘지 않으면 그날은 쉰다. 다음 날 시가에 파는 방식이 흔하다.

3 거는 크기는 언제나 계좌의 정해진 비율
1987년의 그는 30%, 딸 미셸은 10%(1997년 1만→11만 달러), 여든이 넘은 지금은 5~10%("10%도 아주 높다"). 처음이라면 한 번에 잃는 돈을 계좌의 1~2%로.

4 다음 매매는 반반 · 손절은 미리
과거 적중률과 상관없이 지금 이 한 번은 이기거나 지거나. 그래서 크게 걸지 않고, 손절 주문은 밤에도 걸어 둔다. 「작게 걸고, 큰 흐름을 잡아라」

숫자로 보는 그의 길

1962	대학(신문방송학) 시절, 주식 폭락 기사를 보고 시작. "하루에 100달러?" — 본인 말로 욕심 때문
1966	윌리엄스 %R 지표를 만듦(지금도 대부분의 차트 프로그램에 있음)
젊은 시절	"우린 그냥 카우보이였다" — 매매 한두 번에 거의 전부를 걸고, 증거금 전화를 매일 받음
1982~83	시가에서의 움직임을 보다 변동성 돌파 아이디어를 떠올림
1987	대회 계좌 1만 → 220만 → (블랙먼데이) 75만 → 12월 말 110만 달러
1997	딸 미셸 윌리엄스, 규칙대로 1만 → 11만 달러(약 1,000%)
지금	"그 전략은 그때는 빛났지만 지금은 예전만큼 쓸모 있지 않다" — 시장이 거의 하루 종일 열려 시가의 힘이 약해짐

한 줄 정리 — 그를 60년 넘게 시장에 남게 한 건 신호가 아니라 크기였어요. **「작게 걸고, 큰 흐름을 잡아라」**
더 읽기: 래리 윌리엄스 『장단기 투자의 비밀』(이레미디어) · 『좋은 주식은 때가 있다』(페이지2북스)

래리 윌리엄스 본인 인터뷰(TraderLion 2021·2026), completetradersedge.com(1987 로빈스 월드컵 11,376%)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원화는 1달러 1,400원 어림. 예시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종목·시세가 아니에요. 수수료·세금·체결 차이는 빠진 계산이에요.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매매 전 체크리스트

인쇄하거나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매매할 때마다 위에서부터 채우세요. 하나라도 비면 그날은 쉬어요.

A. 장 시작 전 — 어제 숫자

- [ ] 어제 고가 _____원 − 어제 저가 _____원 = 어제 폭 _____원
  규칙 2 · 증권사 앱 일봉에서 확인
- [ ] 내 시장은 밤사이 닫혔다가 열리는가? (시가가 의미 있는가)
  규칙 1 · 24시간 시장이면 시가 기준 시각을 먼저 정한다

B. 장이 열리면 — 기준선

- [ ] 오늘 시가 _____원 + 어제 폭 × _____(예: 0.5) = 기준선 _____원
  규칙 2
- [ ] 기준선에 조건부 주문 또는 가격 알림을 걸었다
  넘지 않으면 그날은 매매 없음

C. 사기 전에 — 크기와 손절

- [ ] 손절가 _____원을 먼저 정했다
  규칙 4 · 사람이 가장 많이 어기는 칸 → 숫자로 미리 걸어 둔다
- [ ] 손절하면 잃는 돈이 계좌의 _____%(처음엔 1~2%) 이하가 되도록 수량을 정했다
  규칙 3 · 계산기 「기준선·수량」 시트
- [ ] 지난 매매가 맞았다고 크기를 키우지 않았다
  규칙 4 · 다음 매매는 언제나 반반

D. 판다 — 다음 날

- [ ] 다음 날 시가에 판다(또는 내가 정한 파는 규칙)
  규칙 2 · 오래 들고 있으면서 생길 일은 짧어지지 않는다

E. 매매 기록 — 끝날 때마다

날짜	종목	어제 폭	시가	기준선	산 가격	손절가	판 가격	결과(%)	규칙 지킴?

처음이라면 진짜 돈 대신 모의 투자로 스무 번쯤 기록부터 해 보세요. 이 전략이 내 시장에서 통하는지는 숫자가 알려 줘요.

래리 윌리엄스 본인 인터뷰(TraderLion 2021·2026), completetradersedge.com(1987 로빈스 월드컵 11,376%)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원화는 1달러 1,400원 어림. 예시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종목·시세가 아니에요. 수수료·세금·체결 차이는 빠진 계산이에요.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

계산기로 기준선·수량 정하기

함께 받은 「래리윌리엄스_기준선계산기.xlsx」를 여세요. 노란 칸만 바꾸면 돼요.

1. 「기준선·수량」 시트 (예시)

칸	값	설명
어제 고가	**10,500원**	어제 가장 높았던 값
어제 저가	**9,700원**	어제 가장 낮았던 값
오늘 시가	**10,000원**	오늘 장이 열린 값
비율 k	**0.5**	가장 널리 알려진 예시 — 시장마다 시험
어제 폭	800원	= 고가 − 저가
✅ 오늘 기준선	**10,400원**	= 시가 + 어제 폭 × k · 넘으면 산다
계좌	**30,000,000원**	
한 번에 잃어도 되는 비율	**1%**	처음이라면 1~2%
손절 폭	**3%**	기준선에서 몇 % 아래에서 자를지
손절가	10,088원	= 기준선 × (1 − 손절 폭)
✅ 살 수량	**961주**	= 계좌 × 1% ÷ 한 주당 손실(312원)
필요한 돈	약 999만 원	계좌보다 크면 수량을 줄인다

2. 「연속 손절」 시트 — 크기가 생존을 정한다

30%씩 걸면

5번 연속으로 틀리면 처음의 **16.8%**만 남아요(약 6분의 1).

2%씩 걸면

5번 연속으로 틀려도 **90.4%**가 남아요.

계좌가 반 토막(−50%) 나면 본전까지 **+100%**가 필요해요. 크게 잃을수록 돌아오는 길은 훨씬 가팔라져요.

3. 「매매 기록」 시트

기준선을 넘은 날마다 한 줄. 산 가격과 다음 날 판 가격을 넣으면 결과(%)와 승률·평균이 자동으로 계산돼요. 스무 줄이 모이면 승률과 평균 수익을 보세요.

래리 윌리엄스 본인도 "그 전략은 지금은 예전만큼 쓸모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내 시장에서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래리 윌리엄스 본인 인터뷰(TraderLion 2021·2026), completetradersedge.com(1987 로빈스 월드컵 11,376%) 등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원화는 1달러 1,400원 어림. 예시 숫자는 설명용이며 실제 종목·시세가 아니에요. 수수료·세금·체결 차이는 빠진 계산이에요. 특정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결과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어요.